

| | | | |
|---|----------------|------------------------------------|--------------|
|  SNU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 | <h1 style="font-size: 2em;">료</h1> | |
| 보도일시 | 즉시 배포 | 담당자 | 현유림· 김신경 연구원 |
| 배포일시 | 2020년 9월 8일(화) | 연락처 | 02)880-2767 |

5월 “코로나 기회론” 우세, 8월엔 “위기론” 인식 역전
“나의 감염 가능성 높다”, 8월 첫주 6.2%서 27.9%로 급증
“나·사회에 가장 큰 위협” 코로나>암>음주운전 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연구팀> 7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 코로나로 위협받는 가치, 사회안전>경제성장>건강·웰빙>상호 신뢰
- 코로나19 대응에서 일반인 신뢰 20.7%로 최저…‘신뢰 사회’ 적신호
- 코로나 기회-위기론, 5월엔 6대4 수준, 8월 “위기” 83.7% 급증
- 무분별·무책임·무개념 개인과 집단에 분노와 공포감 급상승
- “향후 사태전개 불확실” 80% 압도적…“통제가능”도 64.6→44.1% 줄어
- 코로나 뉴스 감정, 불안·슬픔 감소…분노(25.3%)·공포(15.2%) 배 이상 증가
- 우려사항, 내 감염>경제불황>타인을 감염시킴>2차 대유행>불신 증폭
- 코로나로 일자리 잃거나 무급휴직 상태 12.4%…임금 감소도 20.7%
- 3·4월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월수입 감소” 68%…감소폭 평균 20.9%
- 일상위축 7월보다 심해져…여성·2030세대·학생·주부·자영업자가 더 위축
- 정신건강 저해요소, 코로나로 일상자유 박탈>신체활동 감소>정서적 피로>우울감>결혼·시험 중요한 일정 변경·취소>체중 증가>목표 미실현 순
- “방역 강화 시점서 인권보호는 후순위”라는 입장 75.5% 여전히 강해
- 코로나 공존 상황의 스트레스, 2030세대·저소득층·여성일수록 높아…즉각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高스트레스 집단 비율 28.7%로 이전 조사보다 높아져
- 자가격리 문제점, 동거인과 분리공간 확보>경제문제>대신 일할 사람>생활비 순
- 거리두기 정책 성공요건, 방역방해 처벌 강화>가짜뉴스 단속>생계지원
- 혐오발언 대상 1·2순위가 종교인…방역수칙 위반·미실천자, 정치인 순
- 4명 중 1명 “가짜뉴스 접했다” …SNS·유튜브·기사 댓글 등에서 접해
- 코로나로 긴급상황시 도와줄 사람, “가족 외 아무도 없다” 18.4%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 이기영 교수)이 ‘코로나19 기획 연구단’을 구성, 첫 사업으로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설문을 세 차례 연속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제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대학 김홍수(노인보건), 유명순(위기관리), 이태진(보건경제), 조성일(역학)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연구진 (조사 총괄 유명순 교수)이 개발한 문항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추출 방식으로 표집한 만18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기간은 8월 25일부터 28일까지였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2.19%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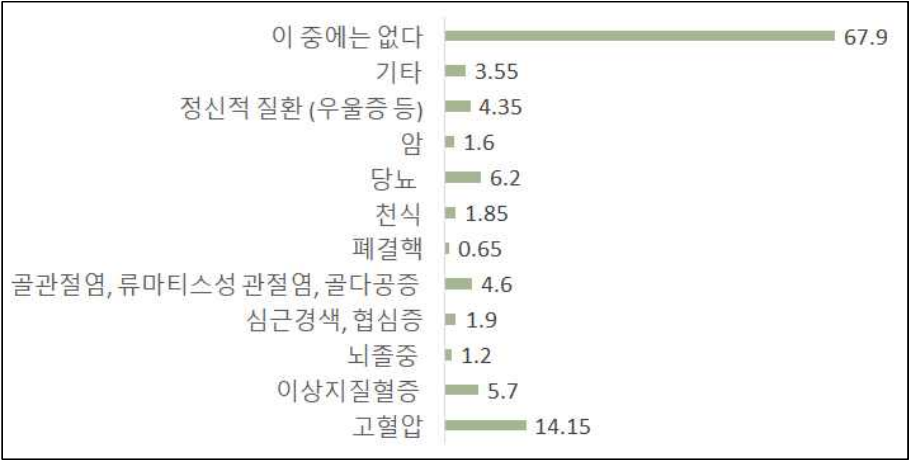
삶의 만족, 행복, 건강

○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5점 척도(1,2: 불만족/ 3: 보통/ 4-5: 만족), 전반적 행복감은 10점 척도(0-5: 행복하지 않음/ 6-10: 행복함), 주관적 건강은 5점 척도(1,2: 나쁘다/ 3: 보통/ 4,5: 좋다)으로 측정했다. 삶의 만족도와 건강 수준은 동일 척도로, 건강하지 못하다 (12.5%)는 평가에 비해 삶이 불만족스럽다(30.9%)는 응답이 더 많다. 행복감은 행복한 편(39.5%)이라는 답변이 행복하지 않다는 답변(35.4%)보다는 높으나 차이가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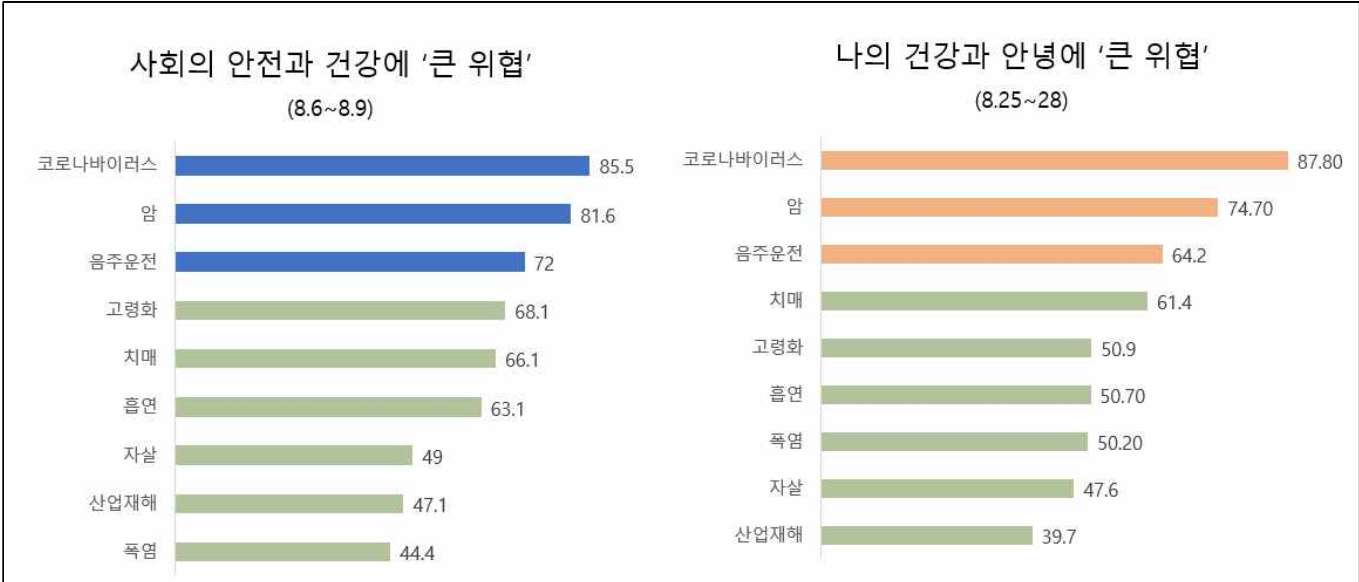
-행복감과 만족감의 경우 여성이, 4050 연령대가, 대졸자가,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삶이 불만족하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는 답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와 달리 건강상태에서는 남성이, 4050 연령대가, 고졸자, 월소득 200만원~400만원 집단이 내 건강이 나쁘다는 답변이 많다.

-지난 1년간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중인 질병이 없다는 답변이 67.9%인 가운데, 해당하는 질병은 (복수 응답 방식) 고혈압·당뇨·관절 질환 등 만성질환들 다음이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4.35%)였다.



코로나19의 상대적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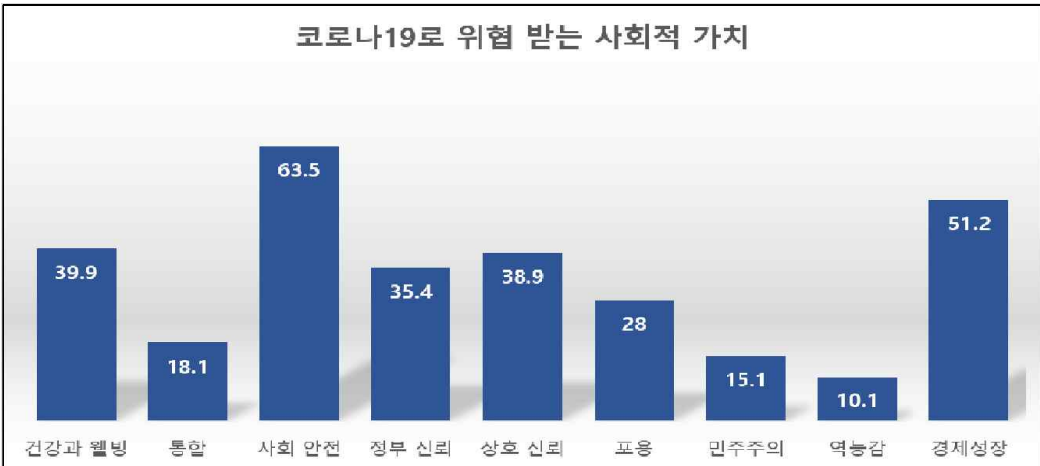
○ 다양한 위험 사안들을 제시하고 각각이 한국 사회 및 나 자신의 안전과 건강에 얼마나 큰 위협인가를 1점: 매우 작은 위협~ 5점: 매우 큰 위협의 5점 척도로 질문, 4점과 5점 응답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나 자신은 물론 (8.25~28 조사)한국 사회(8.6~8.9 조사) 모두에 가장 큰 위협’으로 ‘코로나’가 1순위를 차지했다. ‘암’이나 ‘음주운전’이 그 뒤를 이었다.



※ 8.6~9 조사는 케이스탯의 정기조사에 유명순 교수팀이 개발한 질문을 포함한 뒤 얻은 응답을 분석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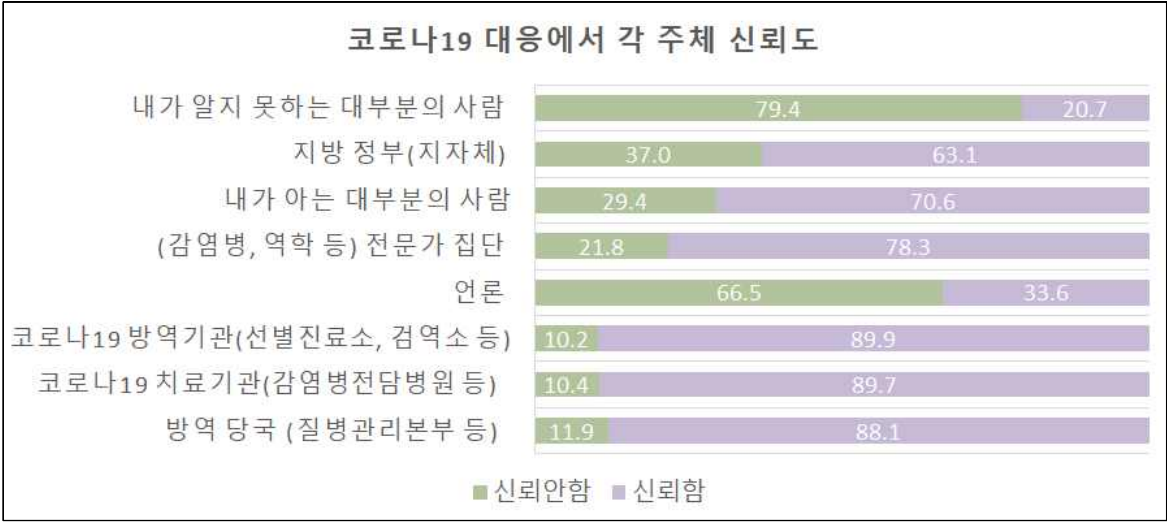
19로 도전 받는 목표와 가치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국 사회의 어떤 가치와 목표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선택지 중 세 개까지 복수 응답하도록 한 뒤 분석한 결과, 상위 5순위는 사회안전 (63.45%)> 경제성장 (51.15%)> 건강과 웰빙(39.9%)> 상호 신뢰(38.9%)> 정부 신뢰(35.4%)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신뢰가 도전 받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또 다른 문항으로는 각 주체별 신뢰도이다. ‘귀하는 국내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다음의 주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를 4점 척도(1,2:

신뢰하지 않음/ 3,4: 신뢰함)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대응 신뢰는 ‘모르는 사람’ (20.7%)이 ‘언론’ (33.6%) 아래 최저 수준. 코로나 대응 주체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선별진료소·전담병원 등 방역·치료 기관과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본부 신뢰가 9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언론이 33.6%로 여전히 낮은 수준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특히, “내가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언론보다 낮은 20.7%로 최저 수준이었다.



19 인식: 연상 이미지

○ ‘코로나19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란 말을 듣거나 접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나 생각이 떠오르십니까?’를 제시하고 한 단어 정도로 답변하도록 개방형으로 질문한 뒤 통계 프로그램 중 워드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 답변의 빈도수를 본 결과, 상위 10개 단어는 전염·감염> 마스크> 무서움·두려움> 불안> 중국> 바이러스> 공포> 우한> 위험> 폐 질환이 차지했다. 이들 상위 10개 단어는 전체 응답의 약 64%를 차지한다.

-답변을 의미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면, 전염·감염, 바이러스, 폐 질환 등 ‘감염병 연상’ 이 22.2%> 무서움·두려움, 불안, 공포, 위험 등 ‘정서적 연상’ 이 20.94% > ‘예방·방역 연상’에 해당하는 마스크가 12.9%> 중국이나 우한 등 ‘진원지 연상’ 이 8% 순이다.

-코로나19의 연상 이미지는 성이나 연령,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 문항을 적용한 유명순 교수팀의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1차 (1월 31~2월 4일) 결과와 비교하면 ‘전염·감염’,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연상이 지배적인 것은 동일하지만 당시 다수 등장했던 ‘메르스’, ‘사스’ 등 ‘사고 이력’ (accident history)이나 ‘신종’ 등의 단어는 현재의 상위권에는 없다. ‘중국’이란 말의 위치가 1월에는 2순위를 차지할 만큼 지배적이었지만 현재는 9위 정도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 | 항목 | 비율 | n |
|----|----------|-------|-----|
| 1 | 전염, 감염 | 16% | 319 |
| 2 | 마스크 | 12.9% | 258 |
| 3 | 무서움, 두려움 | 8.3% | 166 |
| 4 | 불안 | 6.3% | 125 |
| 5 | 중국 | 4.5% | 90 |
| 6 | 바이러스 | 3.9% | 78 |
| 7 | 공포 | 3.8% | 76 |
| 8 | 우한 | 3.5% | 69 |
| 9 | 위험 | 2.5% | 49 |
| 10 | 폐 질환 | 2.3% | 46 |

| | 우한 폐렴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 |
|----|---------|-------|-----------|-------|
| | 항목 | 비율 | 항목 | 비율 |
| 1 | 전염, 감염 | 20.0% | 전염, 감염 | 22.6% |
| 2 | 중국 | 19.7% | 중국 | 11.1% |
| 3 | 바이러스 | 12.0% | 메르스, 사스 | 9.4% |
| 4 | 메르스, 사스 | 7.9% | 바이러스 | 4.9% |
| 5 | 무서움, 공포 | 6.3% | 무서움, 공포 | 4.7% |
| 6 | 마스크 | 3.7% | 신종, 새로운 | 4.5% |
| 7 | 신종, 새로운 | 3.2% | 폐렴 | 4.1% |
| 8 | 죽음 | 2.7% | 마스크 | 3.9% |
| 9 | 박쥐 | 2.4% | 우한 | 3.9% |
| 10 | 기침 | 2.3% | 위험 | 2.5% |

-성별 차이도 나타났다. 여성은 코로나19에 관해 무서움, 두려움 등 정서적 단어를 남성 응답자보다 더 빈번히 떠올렸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반대로 '중국'이란 말의 경우 여성에서는 상위 5순위에 들지 않지만 남성에서는 4순위를 차지한다. 연령 중 60대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과 달리 '마스크'가 등장하지 않는 대신 '폐질환'이 등장하고, '불안'이란 단어의 빈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성별 빈도분석

| | 남자 | | 여자 | |
|---|----------|------------|----------|------------|
| | 항목 | %(n) | 항목 | %(n) |
| 1 | 전염, 감염 | 18.6%(189) | 무서움, 두려움 | 19.3%(190) |
| 2 | 마스크 | 10.7%(109) | 마스크 | 15.2%(149) |
| 3 | 무서움, 두려움 | 7.9%(80) | 전염, 감염 | 13.1%(129) |
| 4 | 중국 | 6%(61) | 불안 | 6.8%(67) |
| 5 | 불안 | 5.5%(56) | 폐 질환 | 4.7%(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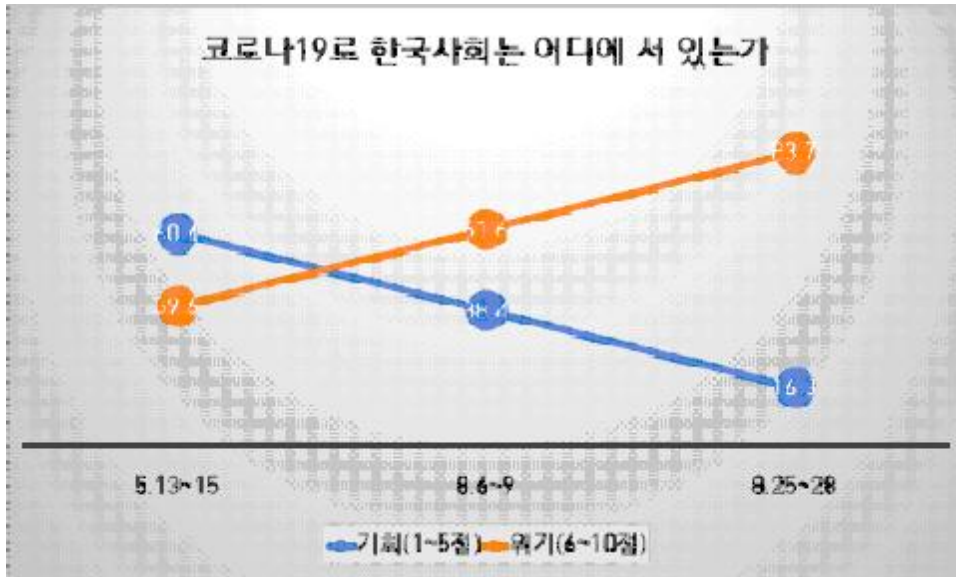
연령별 빈도분석

| | 2030 | | 4050 | | 60대 이상 | |
|---|----------|------------|----------|------------|--------------|-----------|
| | 항목 | %(n) | 항목 | %(n) | 항목 | %(n) |
| 1 | 전염, 감염 | 15.3%(119) | 전염, 감염 | 15.5%(172) | 전염, 감염 | 24.3%(28) |
| 2 | 마스크 | 13.2%(102) | 마스크 | 13.7%(152) | 불안 | 13.9%(16) |
| 3 | 무서움, 두려움 | 9.9%(77) | 무서움, 두려움 | 12.2%(135) | 무서움, 두려움 | 12.2%(14) |
| 4 | 중국 | 8%(62) | 불안 | 6.2%(69) | 폐 질환 | 5.2%(6) |
| 5 | 우한 | 5.6%(43) | 공포 | 4.5%(50) | 격리, 중국(공동5위) | 4.3%(5) |

19 인식: 사회적 위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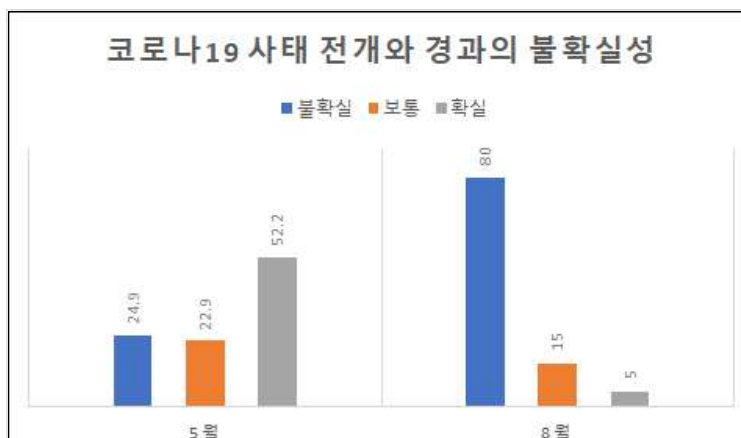
○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완전한 위기1점 완전한 기회10점으로 묻

고 1-5점 답변을 위기 방향으로 인식, 6-10점을 기회 방향으로 인식으로 나누어 본 결과, 동일 문항을 적용한 유명순 교수팀의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5차 (5월 13~15일) 결과 및 8월 6~9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5월에는 6대 4 수준에서 ‘기회’라는 인식이 높았으나 8월 시점에서는 역전했고 위기라는 인식의 강도가 3월의 39.6%에서 83.7%로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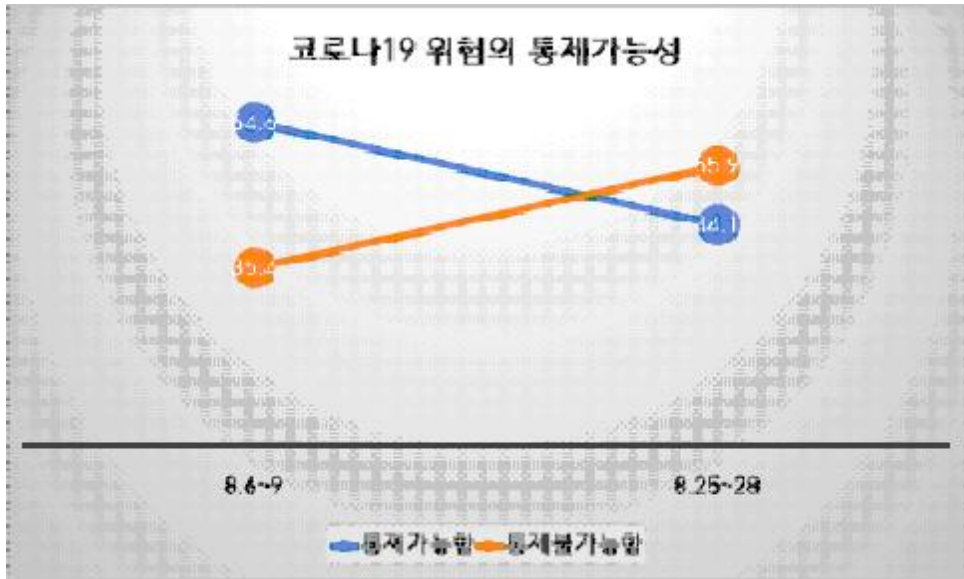
19 인식: 전개의 불확실성 및 위험의 통제 가능성

○ 발생 이후 지금까지를 볼 때 코로나19 사태의 경과나 전개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5점 척도로 묻고 1,2점 불확실하지 않음/ 3점: 보통/ 4,5점: 불확실함으로 재분류한 결과, 응답자의 약 80%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유명순 교수팀의 5차 코로나19 위험인식 조사 결과와 다른 분포 양상으로, 5월의 경우 해당 질병의 전개·치료·종료 등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은 24.9%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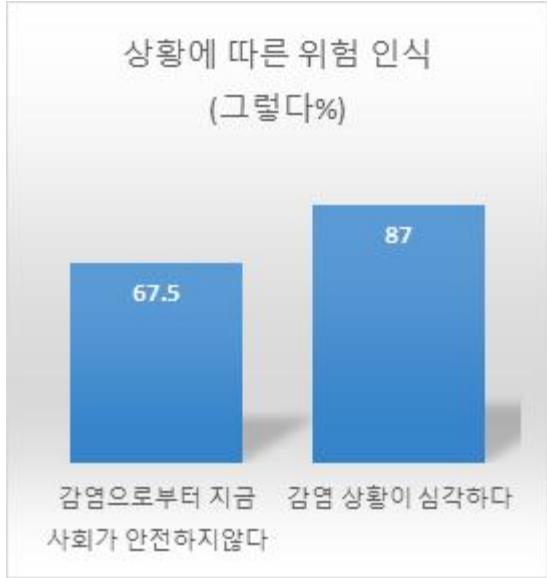


○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위험인가를 1점 전적으로

통제가능~10점 전적으로 통제 불가능으로 표시하도록 질문하고 1-5점: 통제 가능한 쪽의 인식, 6-10점: 통제 불가능쪽의 인식으로 나누어 분율을 본 결과, 8월 6일~9일 조사에서는 '통제 가능'의 긍정적 인식이 64.6%였으나 이번 1차 즉 8월 25~28 조사에서는 '통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35.4%→55.9%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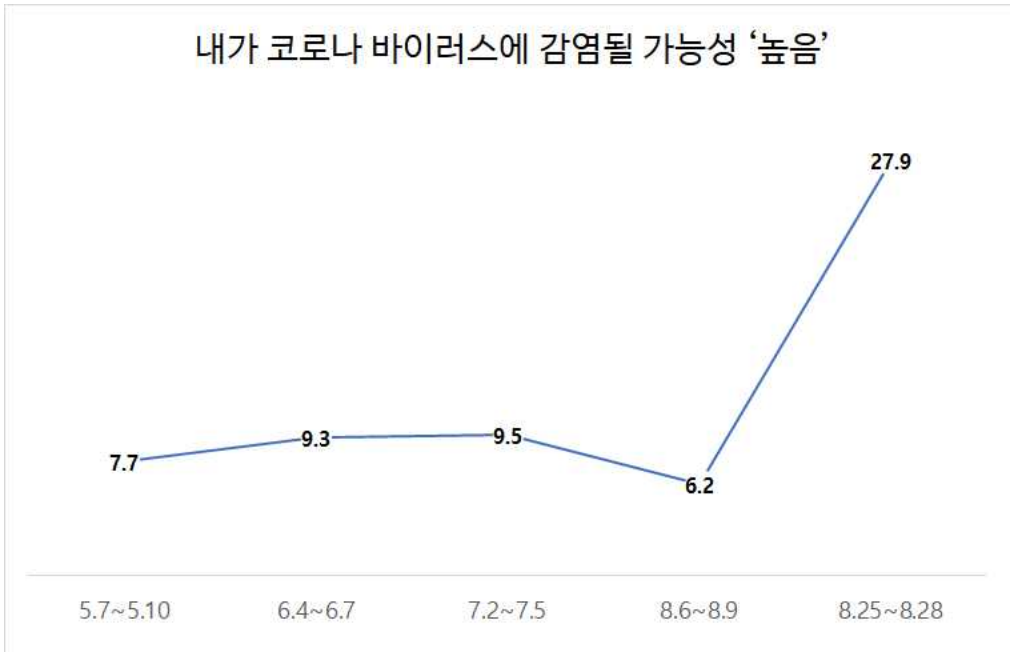
-이 외에도 한국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1,2: 안전하지 않음/ 3: 보통/ 4,5: 안전함)에서 안전하지 않다가 67.5%,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얼마나 심각한가 질문(1,2: 심각하지 않음/ 3: 보통/ 4,5: 심각함)에서 심각하다는 답변은 87% 수준으로 나타났다.



19 인식: 감염 가능성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크게 상승했다. 자신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1,2: 가능성 낮음/ 3: 보통/ 4,5: 가능성 높음 중 4점과 5점 기준으로 분율)는 답변은 생활방역 전환 이후 9% 수준으로 약간 상승했다가 7월에 들어서면서 감소, 8월 첫째 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7.9%로 상승, 4.5배 증가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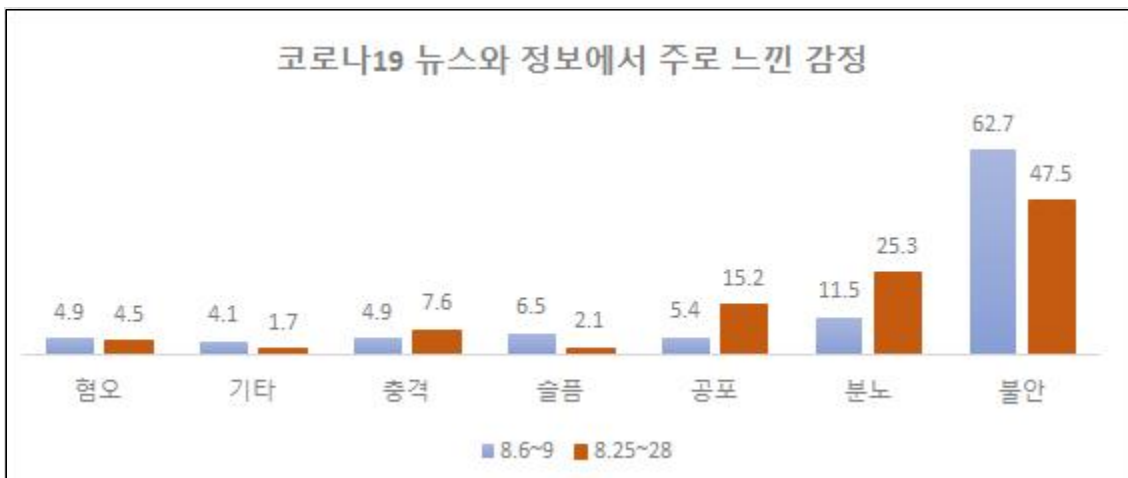


※5~8월 결과값은 케이스탯이 유명순 교수팀의 문항을 정기조사에서 활용한 응답을 분석한 것

-지난 1월부터 동일 문항들을 적용하여 추이를 본 결과들과 본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유 교수는 “같은 달에 실시된 조사인데도 8월 첫째 주와 마지막 주 조사 결과 감염 가능성과 상황 인식 등 대부분의 위험 인식 지표에서 결과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지난달 하순 2차 대유행 직전까지 치달았던 수도권 중심의 감염 확산 사태가 2월의 1차 대유행때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위험인식을 오히려 더 높인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19 인식: 감정

○ ‘코로나19 뉴스에서 어떤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는가’를 고르도록 한 결과, 8월 첫째 주 대비 8월 말 조사에서는 분노 11.5%→25.3%로 13.8%p(2.2배), 공포 5.4%→15.2%로 9.8%p(2.81배) 상승했다. 반대로 가장 주요한 감정으로 선택된 불안은 62.7% 47.5%로 15.2%p하락했고, 슬픔의 경우는 1/3 수준으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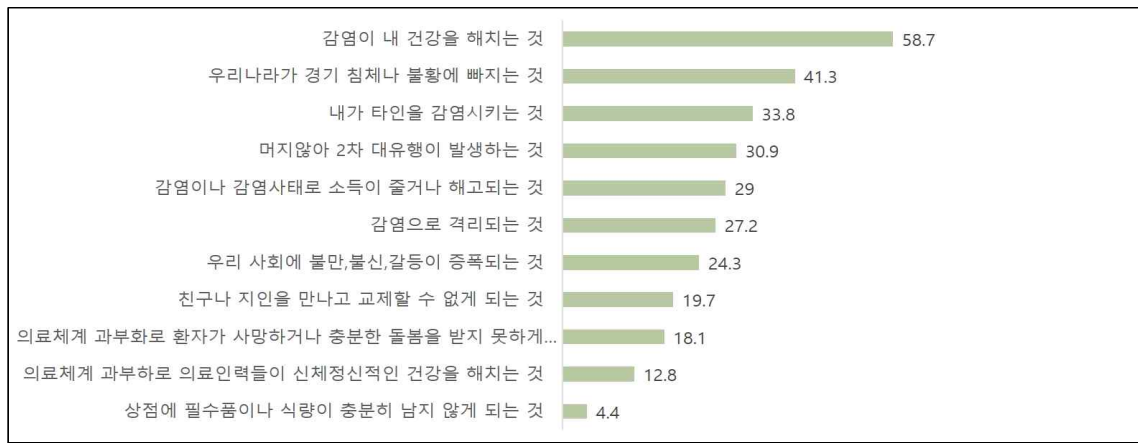


- 감정을 느낀 이유나 계기를 간단히 적어달라는 개방형 질문에서, “분노”를 선택한 응답자의 답변에는 “비협조” “집단 이기심” “무분별” “무책임” 등이 ‘8.15 집회’, ‘사랑제일교회’ 등과 “정부의 안일한 대책”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는 언론(‘기레기’)” “정부에서 코로나를 방심하는 것” 등의 지칭과 함께 빈번하게 등장한다.

- “공포”를 느꼈다는 사람들의 답변에는 ‘확진자 후유증’, ‘확진자 증가’ 등이 공통되게 등장한다. “코로나로 죽을 수 있다” “후유증이 남는다” “감염자가 너무 많이 발생”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될 것 같다” “바이러스 모양도 무시무시하고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다른 곳으로 피할 곳도 없으며 치료제도 없음” “소리 없이 퍼지고 겪은 사람의 증상을 들으니 더 공포스럽다” 등이 일부 예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3단계 기준이 다가와서”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멈춰버릴 것 같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안” 등 경제 위축과 생계 문제가 공포의 이유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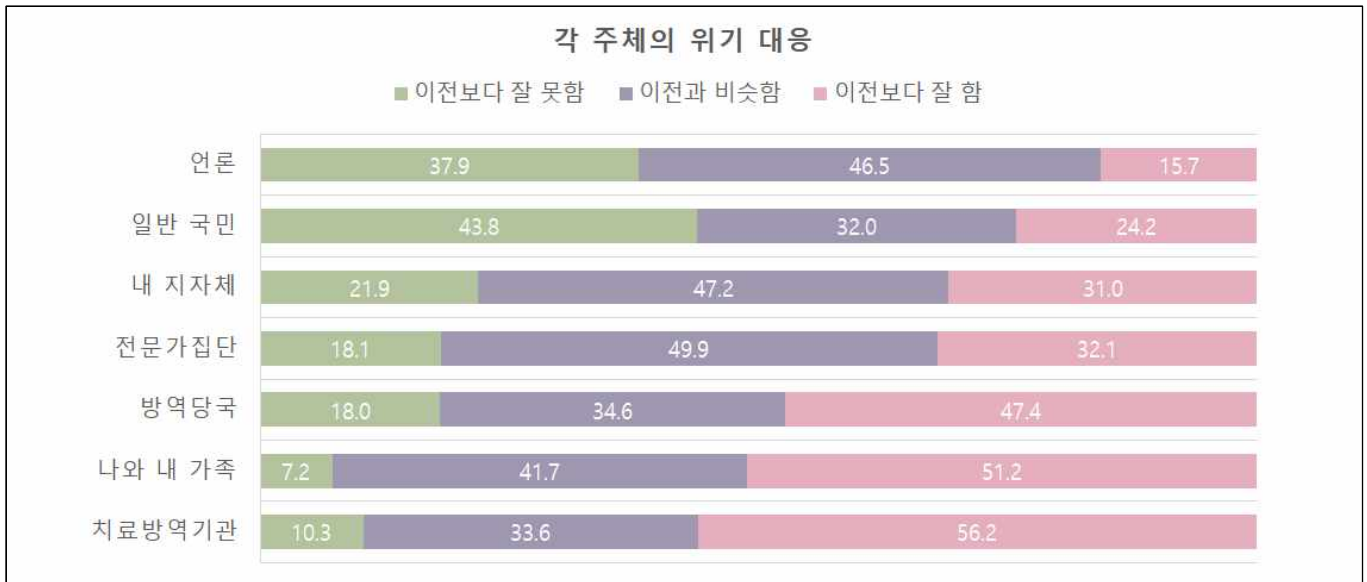
19 인식: 우려하는 사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을 순서대로 세 개 고르도록 한 뒤 총합하여 순위를 매겨보면, 가장 우려하는 사안으로 꼽힌 것은 ‘감염이 건강에 미칠 영향’(59%)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기침체나 불황에 빠지는 것 (41.25%)을 우려한다는 답변이 다음 순위이고, 내가 타인을 감염시키는 것, 머지않아 2차 대유행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거나 해고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3~5순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대응: 이전 대비 현재 대응 수준 평가

○ 이전 대비 현재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5점 척도(1,2: 이전보다 잘 못하고 있음/ 3: 이전과 비슷함/ 4,5: 이전보다 잘 하고 있음으로 질문한 결과, 이전보다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잘하는 상위 3순위는 치료·방역 기관 56.2% > 나와 내 가족 51.2% > 방역 당국 47.4%이었다. 반면 ‘일반 국민’과 ‘언론’의 경우는 이전보다 잘 못한다는 평가가 각각 43.8%, 37.9%이고, 이 수치는 이전보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24.2%, 15.7%)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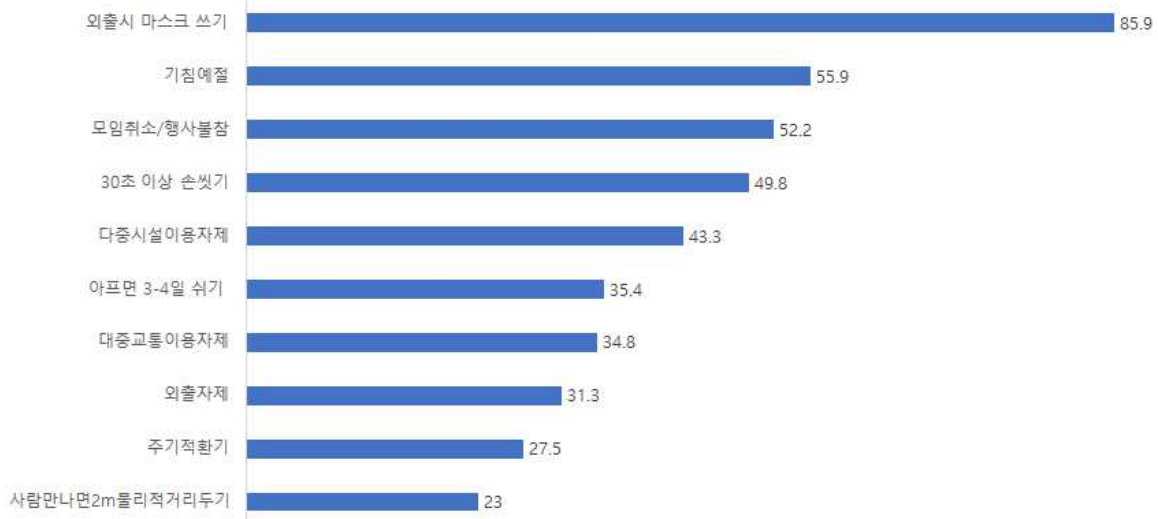


19 대응: 권고행위 실천

○ 일주일 동안 권고행위를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를 4점 (전혀, 가끔, 자주, 항상) 척도로 묻고 “항상” 실천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마스크 쓰기>기침예절>모임취소/행사불참 순이며, 이 행위들은 응답자의 50% 이상이 “항상” 실천하는 수준을 보였다.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이동이나 외출 자제’의 ‘항상’ 실천율은 30% 수준이며, ‘사람 만날 때 2m 물리적 거리두기’가 2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주기적 환기’ 역시 27.5%로, 마스크 쓰기에 비하면 약 1/3 수준이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어제 하루를 기준으로 가정을 제외하고 귀하와 상대방이 모두 마스크 없이 만난 경우, 상대방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를 개방형으로 질문, 답변의 평균을 본 결과 3.51명으로 이는 지난 6월 유명순 교수팀의 코로나19 인식조사 6차 결과의 3.73명보다는 감소한 것이나 감소 폭이 크지는 않다. 구간을 나눠서 보면, 마스크 쓰지 않고 3명 이상을 만나는 경우가 36.7% 수준이다.

지난 1주일간 '항상' 실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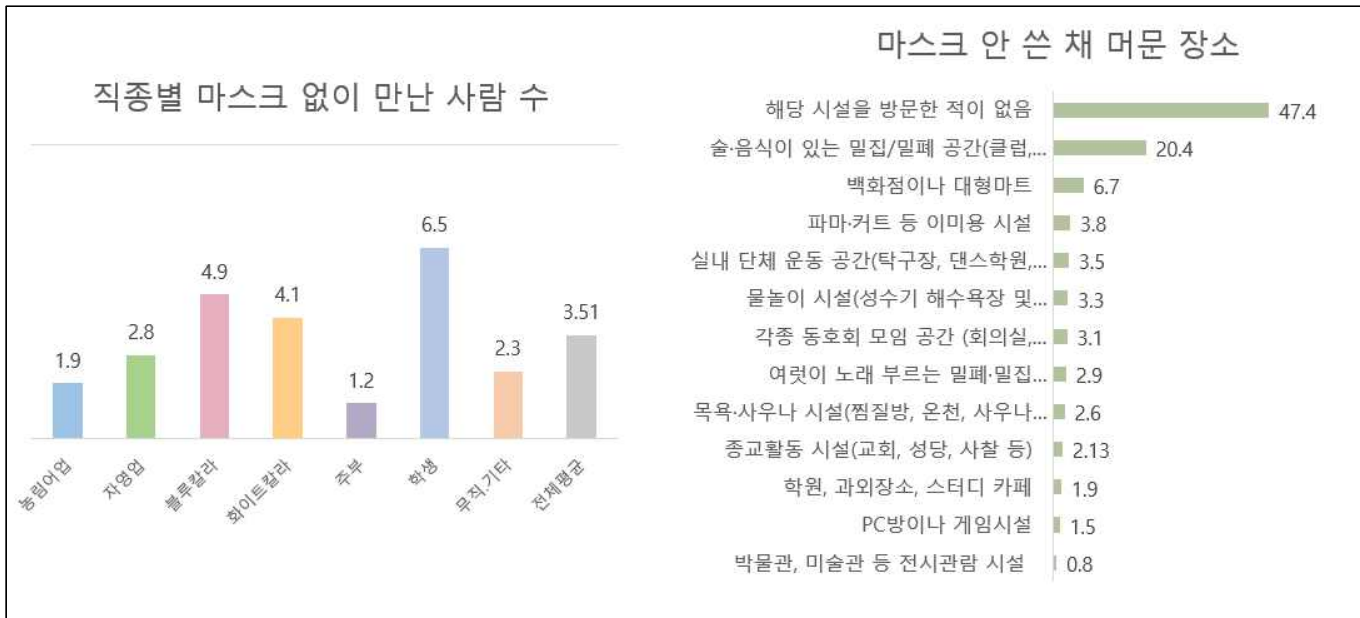


어제 하루, 나와 상대방 모두
마스크를 안 쓰고 만난 경우
상대방 수

마스크 없이 만난 사람 비율 (8.2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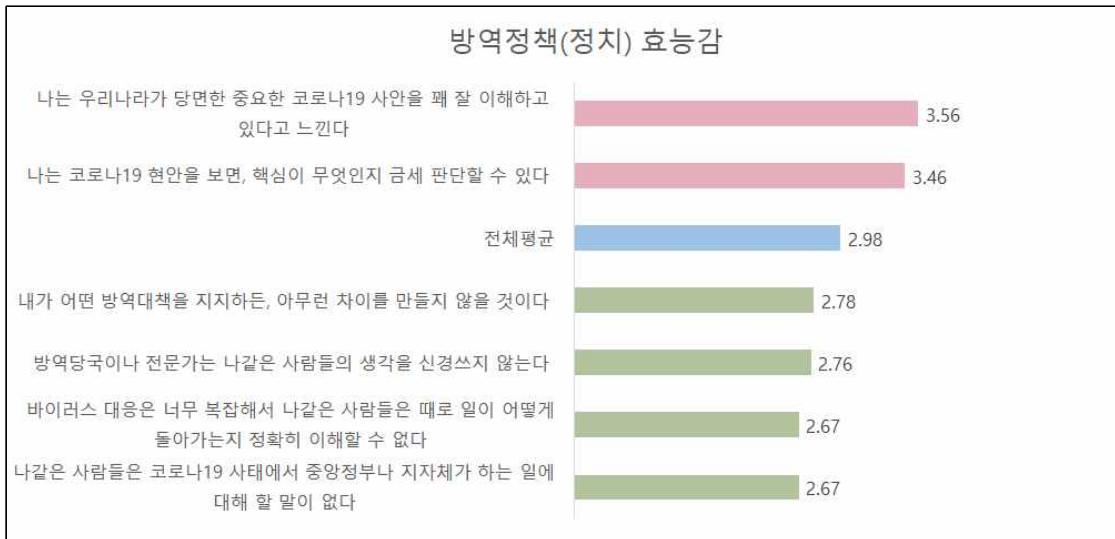
-마스크 없이 상대방을 만나는 경우는 성별연령별직업 및 소득별로 차이가 났고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 경우는 직업이다. 주부의 경우가 평균 3.51명보다 낮은 1.2명인 것에 비해서 학생과 생산직과 사무직은 평균을 넘고 특히 자신을 학생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마스크 없이 6.5명을 만난다고 대답했다. 장소 기준으로는 식당카페 등 밀집 환경이 20.4%이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그 다음이다. 마스크 안 쓴 채 머무르는 장소로 이·미용시설 (3.8%)이 3순위로, 거리두기 정책이나 소통에서 반영될 필요성을 엿보게 한다.



-효능감은 대응 효능감 및 정책/정치 효능감 등 학술적인 두 차원으로 조사했다. 건강 문헌에서 중요시하는 대응 효능감은 (response efficacy)는 총 6개로 제시한 권고행위 실천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1,2: 도움이 되지 않음/ 3,4: 도움이 됨)로 물었고, 방역정책(정치)효능감은 널리 알려진 정치 효능감 문항을 방역 상황에 맞게 변형한 유명순 교수팀의 『코로나19 국민 인식조사』의 6개 문항 5점 척도(1,2: 동의하지 않음/ 3: 보통/ 4,5: 동의함)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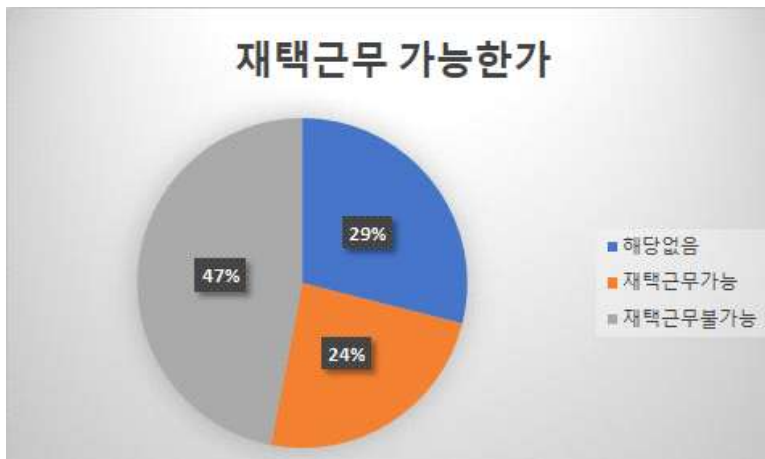
-분석 결과 대응 효능감은 모든 문항의 평균점이 3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3.48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방역 상황에서의 정치적 효능감의 경우, 현안을 잘 이해하고, 문제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내적인 효능감 2개 문항들은 보통 이상~동의하는 방향, 반대로 부정적인 외적 효능감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양호한 효능감 수준을 보였다.





여건: 재택근무

○ 재택근무가 가능한가를 단일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4%만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대답했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47%이다. 해당 없다는 답변은 29%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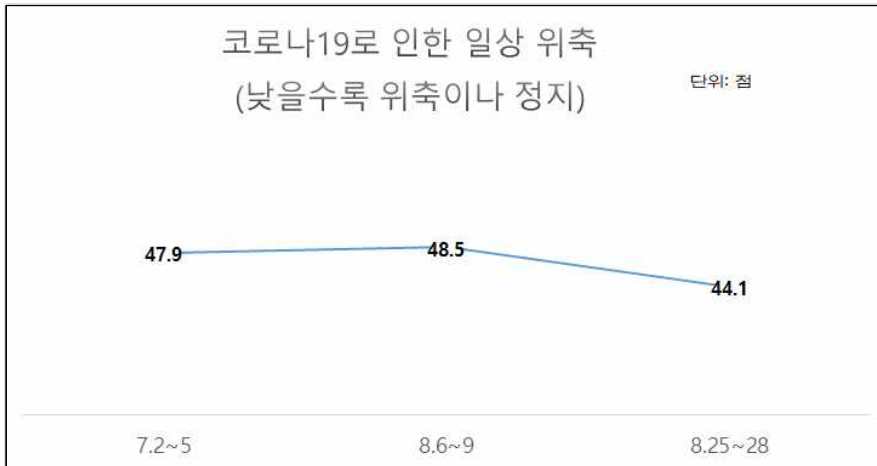
-재택근무 가능 여부는 교육, 소득, 및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4050대의 55.3%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반면, 2030대의 경우는 39.9%였고, 대졸자의 72.4%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반면, 중졸 이하에서 그렇다는 답변은 0.4%로 크게 차이가 났다.

-소득의 경우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37.5%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200만원 이하에서는 6.3%에 불과하다. 끝으로 재택근무는 남성 (54.1%)이 여성(45.9%)보다 가능하다는 답변 수준이 높았고, 직종 중에서는 사무직(49.3%)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일상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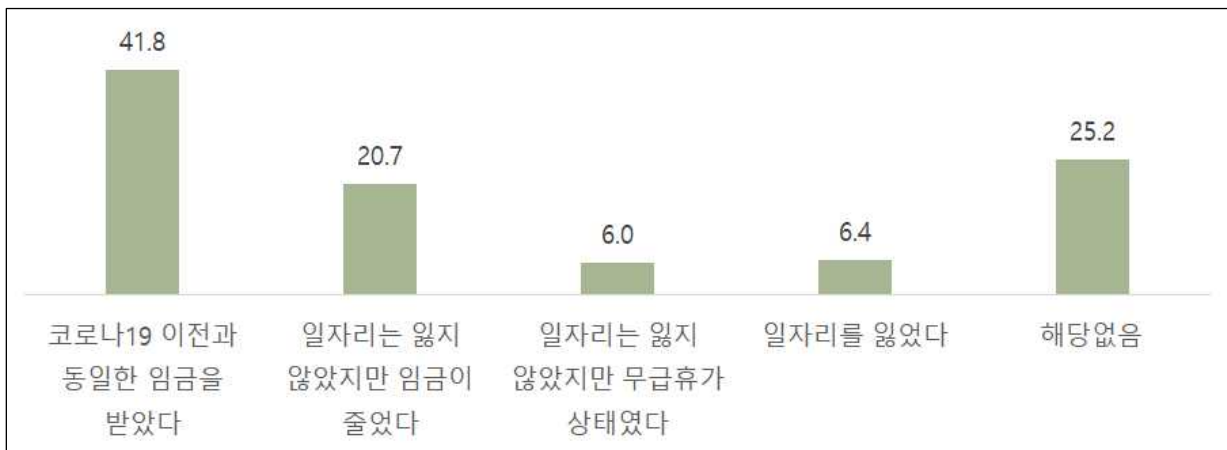
○ 코로나19 로 인해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이전의 일상을 100점, 일상이 완전히 위축이나 정지된 상황을 0점으로 보고 점수를 매기도록 질문한 결과, 8월 첫째 주 (48.5점)에 비해 44.1점으로 4.4점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일상 위축은 여성, 2030대 청년층, 학생·주부·자영업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19 장기화 영향: 일자리, 임금 및 소득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와 임금에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한 결과(1: 이전과 동일, 2: 일자리 잃지 않았지만 임금 감소, 3: 일자리 잃지 않았지만 무급휴가, 4: 잃음, 5: 해당없음) 중 택하게 한 뒤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41.8%였다. 6.4%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고, 6.0%는 무급휴직 상태, 일자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20.7%, 해당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25.2%이다. 응답 중 ‘해당 없음’을 제외하고 분율을 보면, 일자리를 잃은 경우는 8.55%, 무급 휴가상태 7.95%, 임금이 줄어든 경우 27.66%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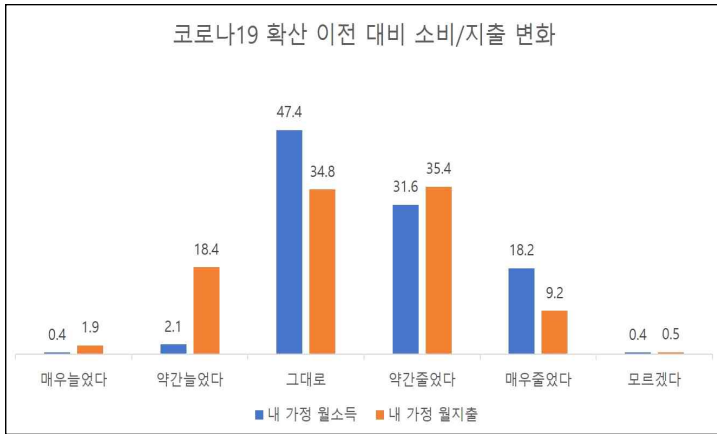


-“일자리를 잃었다”는 응답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40-50대(50%), 교육수준은 대졸(62.3%), 소득에서는 200만원~400만원(29.7%), 성별로는 여성(51.6%)에서 범주 내 다른 집단보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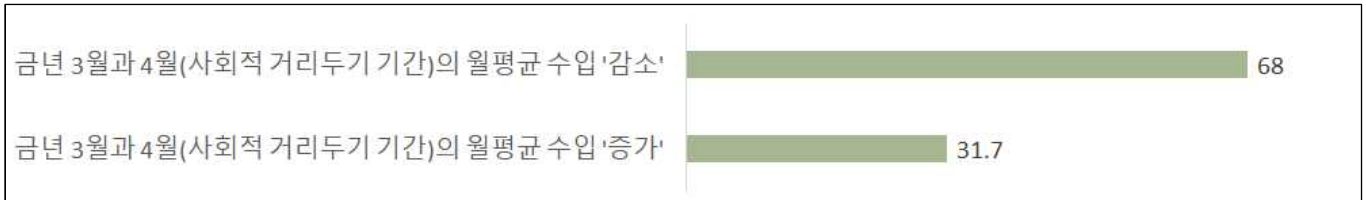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소득과 지출 변화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가정의 소득과 소비 지출 각각이 이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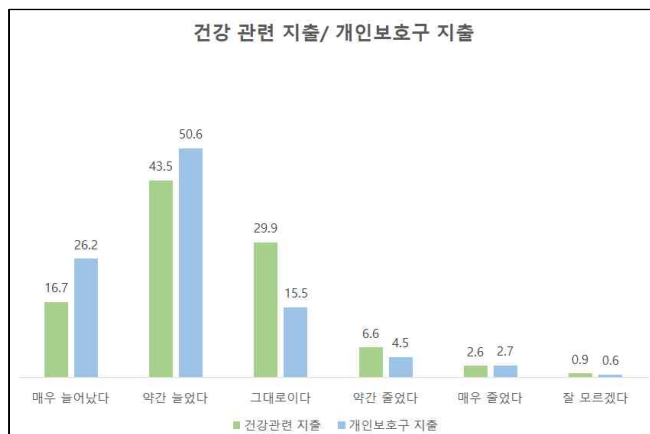
척도(1,2: 늘어남/ 3: 그대로/ 4,5: 줄었음/ 9: 잘 모름)으로 질문한 결과, 소득이 이전 그대로란 답변은 47.4%, 가계 지출이 이전과 그대로라는 답변은 34.8% 였다. 소득이 약간+매우 줄었다는 답변은 49.75%, 지출이 약간+매우 늘었다는 답변은 20.3%이다.



- 다음으로 금년 3월과 4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월평균 수입이 달라졌는가를 '증가'와 '감소' 중 택하게 하고 각각 증가와 감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직접 몇 % 증가와 감소로 적게 하여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수입이 '증가' 했다는 응답은 31.7%, '감소'했다는 응답은 68%로 나타났다.
- 3,4월 월 수입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평균 4.2% 수입이 증가했고, 수입이 '감소' 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평균 약 2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건강 관련 지출이 달라졌는지를 두 항목으로 질문했다. 마스크, 손 세정제 등 개인 보호구를 제외한 건강 관련 지출이 달라졌는가의 질문에서 해당 지출이 (약간+매우) 늘었다는 답변은 60.2%였고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개인 보호구 항목 지출이 늘었다는 답변은 76.8%였다.



19 장기화 영향: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

○ 연구진의 기존 조사와 코로나19와 정신건강 문헌을 참고, 총 9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복수응답 방식으로 실제 경험의 빈도를 조사했다. 문항별 빈도는 일이나 생활에서 자유가 제한됐다 (55.0%)> 걷기 등 신체활동 감소 (50.9%)> 정서적으로 지치고 고갈됨을 느낌(39.3%)> 실제로 우울감을 느낌(38.4%)> 중요한 일정(결혼식, 시험, 취업)이 변경·취소> 실제로 체중 증가(25.8%)> 중요한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다(16.6%)>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험을 함(13.6%)> 중요한 관계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했다(10.6%) 순이다. 응답자의 91.5%가 9개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답했고,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8.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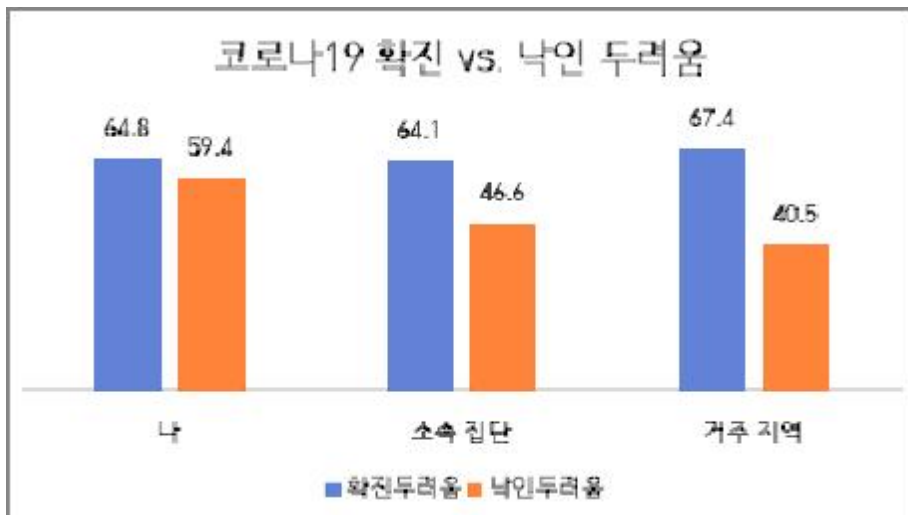
-답변을 문헌 등의 내용에 따라 범주화하면 일상자유 제약과 박탈(53.5%)>중요한 관계로부터의 분리(38.2%)>삶의 목표 미실현(8.3%) 순이며, 신체활동 감소나 체중 증가 등 신체적 변화는 우울감이나 피로감 경험 같은 정서적 변화와 서로 동일한 수준이었다.

| | |
|--|--|
| | |
|--|--|



19 장기화 영향: 낙인 두려움

○ ‘나 자신’, ‘직장이나 종교 등 내가 속한 집단’,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확진될 것에 대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대한) 두려움과 확진됐을 때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로 인해 비난 받거나 피해 받을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각각 5점 척도(1,2: 그렇지 않다/ 3: 보통/ 4,5: 그렇다)로 질문하여 분율을 본 결과, 전체적으로 확진 두려움이 낙인 두려움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64.8%는 내가 확진될 것이 두렵다고 답했고 59.4%는 확진된다면 그것을 이유로 주위로부터 비난과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렵다고 대답했다. 낙인 두려움의 수준은 나 자신의 경우에 비해 직장, 종교 등 소속 집단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비난 받거나 피해 받을 두려움 (46.6%), 거주 지역이 낙인 받을 두려움 (40.5%)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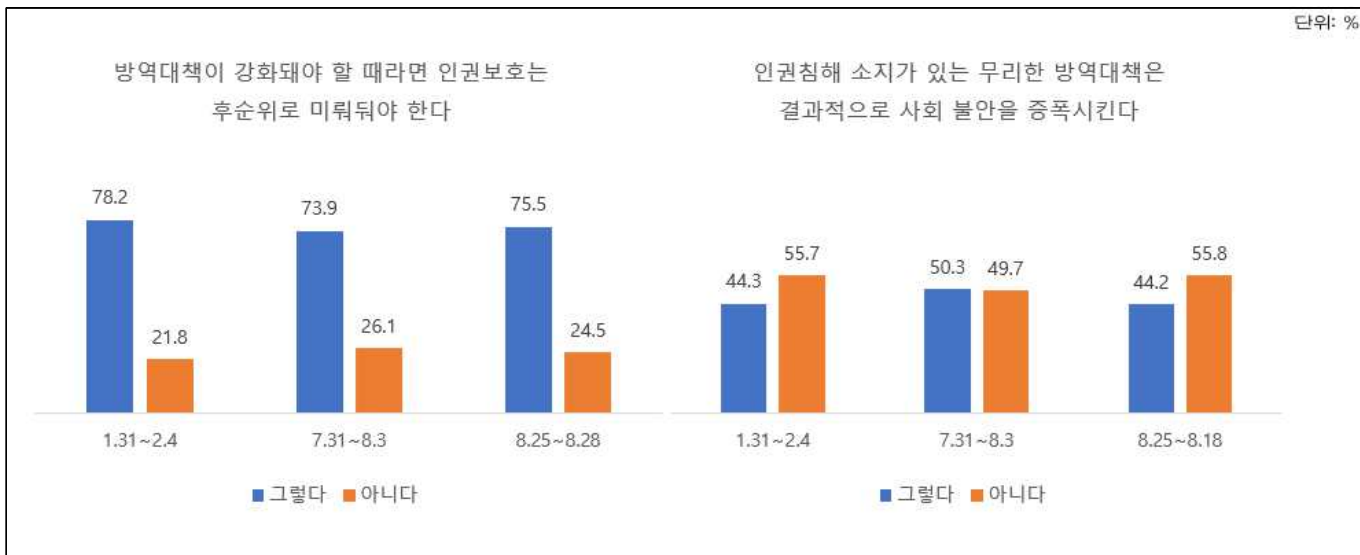
-한편, 응답자의 63.7%는 주변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것 같아서 두렵다고 답했고, 감염이 의심되는 데도 검사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렵다는 응답도 57.3%으로 높은 수준이다.



19 장기화 영향: 방역과 인권

○ 유명순 교수팀의 1차(1.31~2.4일 조사) 조사와 동일 문항을 동일 척도로 질문한 결과, ‘방역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인권은 후순위’라는 진술문에 대해 “그렇다”는 동의 수준은 1.31~2.4일 78.2%→ 8월 25~28일 75.5%로 반 년 이상이 흐른 시점에서도 서로 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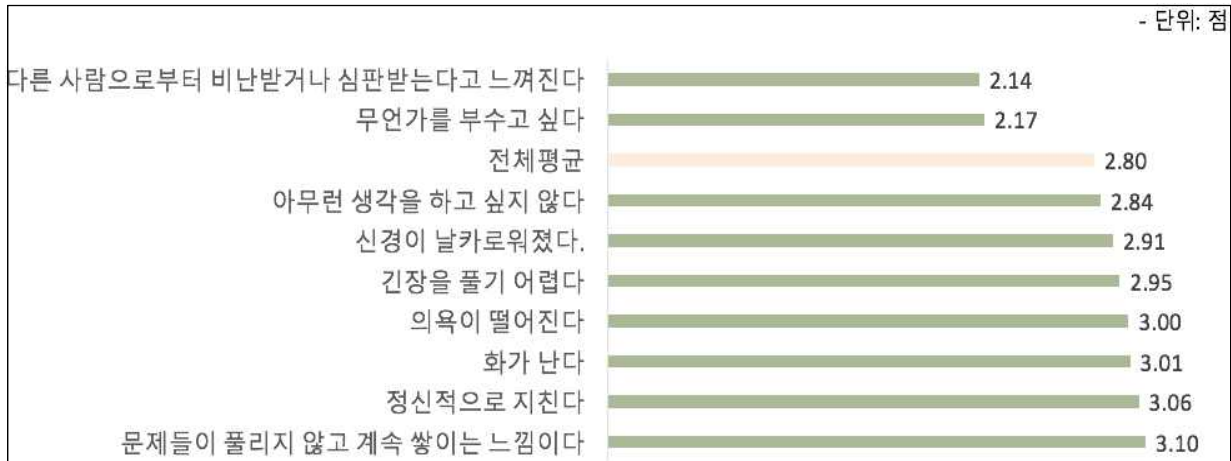
-당시 질문의 구성이나 방식에 따른 답변 차이가 날 것을 고려 추가로 진술문을 제시했고, 이번에도 반복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방역 대책은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에 대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차 (1.31~2.4) 55.7%→본 조사(8.25~28) 55.8%로 거의 동일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스트레스

○ 스트레스는 국민건강영양 스트레스 측정도구로 개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9개 문항(KN HANES)을 사용하였다. 응답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이며, 조사 결

과 전체 평균은 2.80점으로 중간 이상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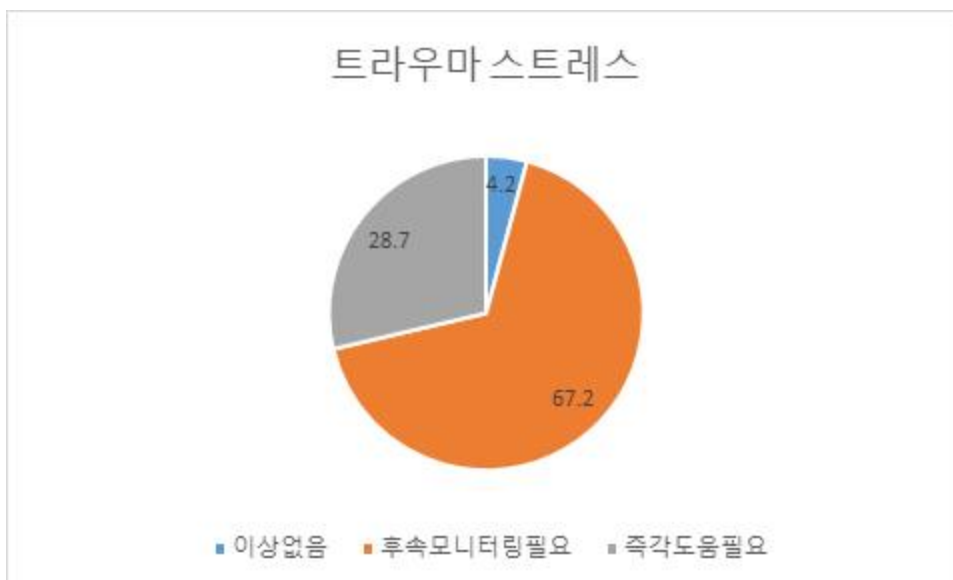


-문항별로는 심리적 정체감에 해당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느낌’, 고갈이나 탈진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지침, 화가 남, 의욕 상실이 3점 이상을 기록한 상위 4 수준이고, 타인에게 심판을 받는 느낌이나 부수고 싶은 느낌은 평균 이하였다.

-참고로, 유명순 교수팀이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치료·방역팀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동일 척도 적용 결과, 전체 평균은 2.97로 일반인 2천명 대상의 결과 2.80점보다 약간 높고, 문항별로는 평균점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타인에게 비난 받거나 심판 받는 느낌(3.43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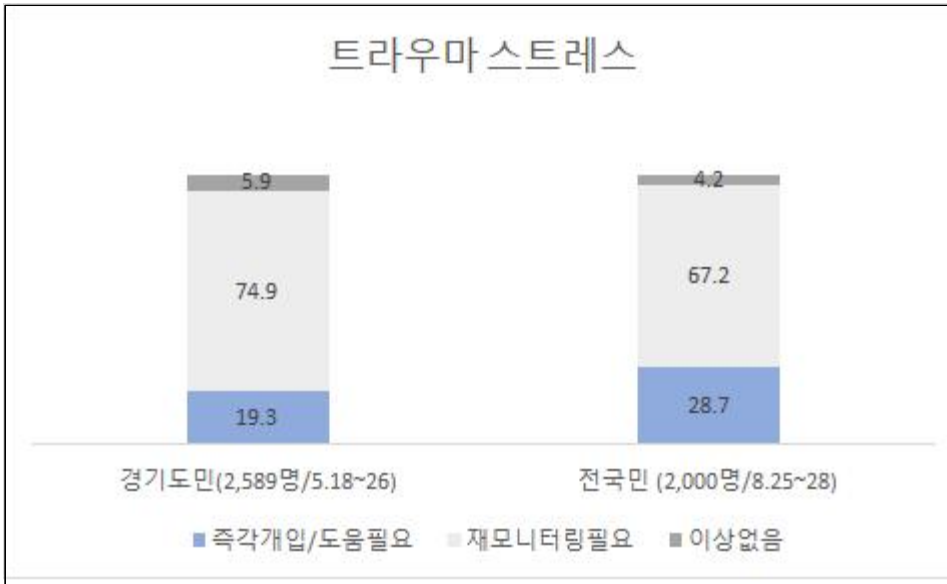
-이런 스트레스는 2030대, 여성, 중졸이하, 월소득 200만원 이하에서 범주 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치되거나 악화될 경우 개인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예방 (심리지원이나 방역)이 필요한 위험집단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트라우마 스트레스 도구를 통해 측정된 결과, 응답자의 28.7%가 즉각 도움이나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고스트레스 집단의 비율(28.7%)은 지난 5월 동일 문항을 적용한 유명순 교수팀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공동 조사 (경기도민 2,589명 대상) 때의 19.3%보다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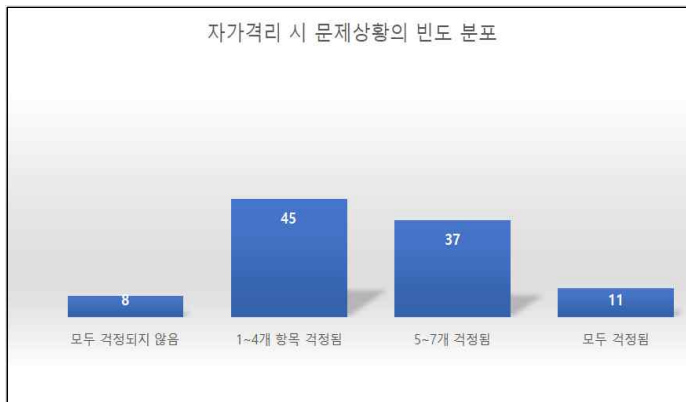
트라우마 스트레스



19 장기화 대비: 자가격리 대비/가족 돌봄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의 일환으로 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했다. 문항은 경제적, 물리(환경)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을 포함, 총 9개 문항을 연구진이 개발하여 5점 척도로 (1=전혀 문제안됨~5=매우 문제됨) 질문했다. 답변은 문제안됨(1~2점)과 보통(3점), 문제됨(4~5점)으로 재분류했다.

-분석 결과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8%였고 제시한 9개 상황 모두가 문제라는 답변은 11%였다. 응답자의 45%가 1~4개 항목이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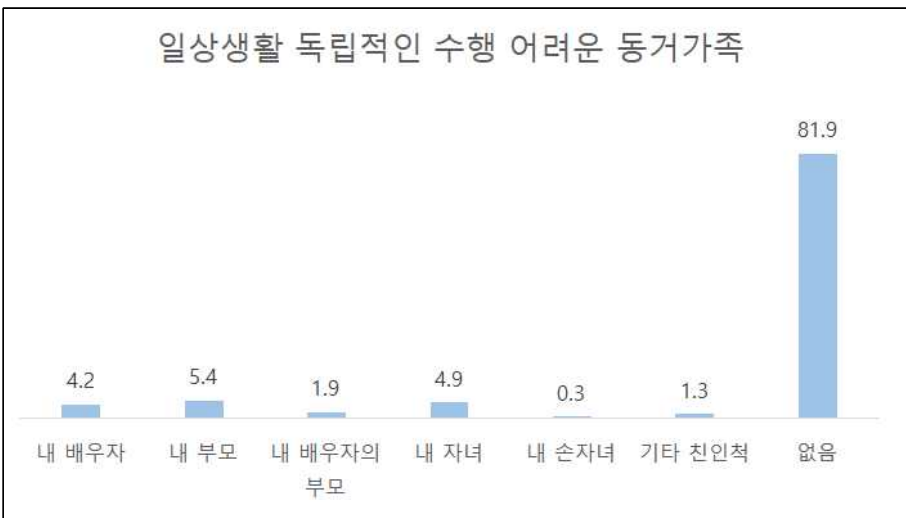
-자가격리 시 문제가 (약간+매우) 된다고 선택된 상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황은 “동거인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려움”(66.4%)이고 “자가격리로 하던 일을 멈추면 생길 경제적 문제에 대안이 없음”(61.3%)이 2순위를 차지했다.

자가격리 들어간다면 '약간+매우' 문제됨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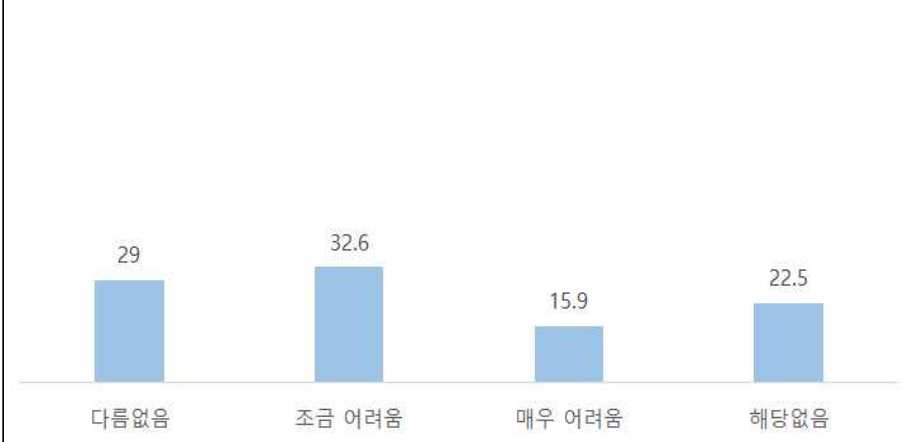
○ 돌봄의 경우, 동거하는 가족 중 지난 1주일 기준 옷 입기, 씻기, 식사,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성원이 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한 결과 (잠시 아프거나 다쳐서 독립적인 일상 생활 수행은 어렵지만, 석 달 이내에 해결된다고 보는 경우 제외하도록 요청) 응답자의 18.1%는 돌봄이나 수발이 필요한 가족이 있었고 대상은 부모(5.4%) > 자녀(4.9%) > 배우자(4.2%) 순이었다.

일상생활 독립적인 수행 어려운 동거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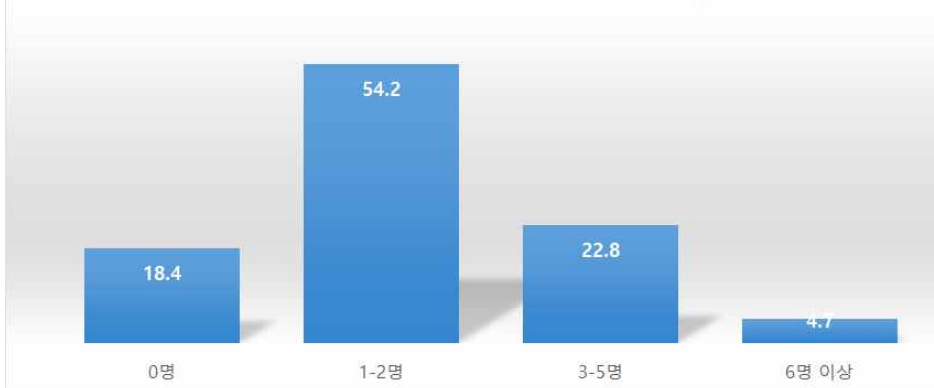
-해당 답변자에게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돌봄이나 수발에 변화가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조금 어려워졌다 (32.6%), 매우 어려워졌다 (15.9%) 로 이를 합하면 48.5%는 코로나19로 수발과 돌봄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는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수행 독립적으로 수행 어려운 가족 수발에 변화 있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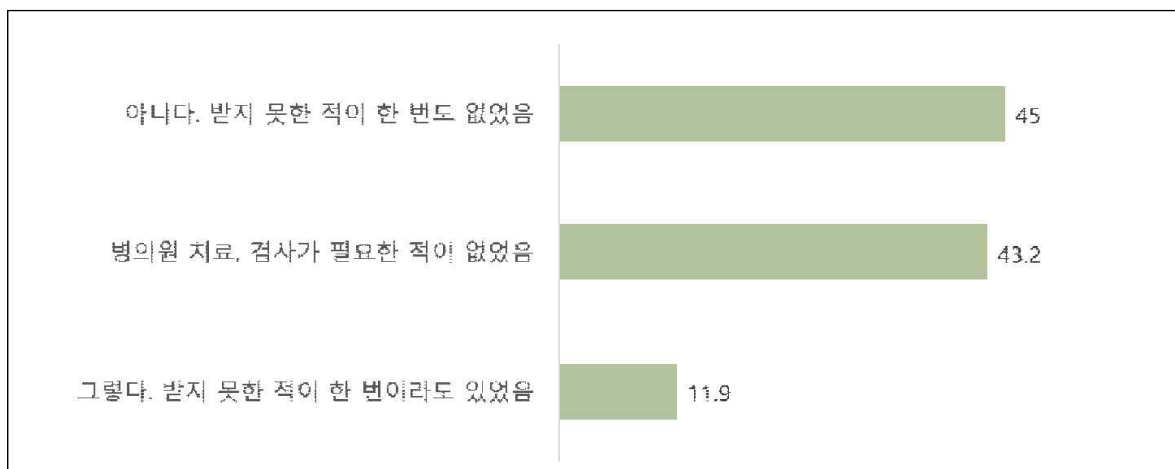


○ 확진이나 밀접 접촉자가 될 때 긴급히 연락, 부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을 동거 가족은 제외하고 몇 명인지 적어달라는 질문에는 평균 2.13명으로 나타났고 가족 외 아무도 없다는 답변은 18.4%를 차지했다.

확진/접촉자 통보 받고 긴급히 연락해서 부탁이나 도움 청할 수 있는 (함께 사는 가족 이외)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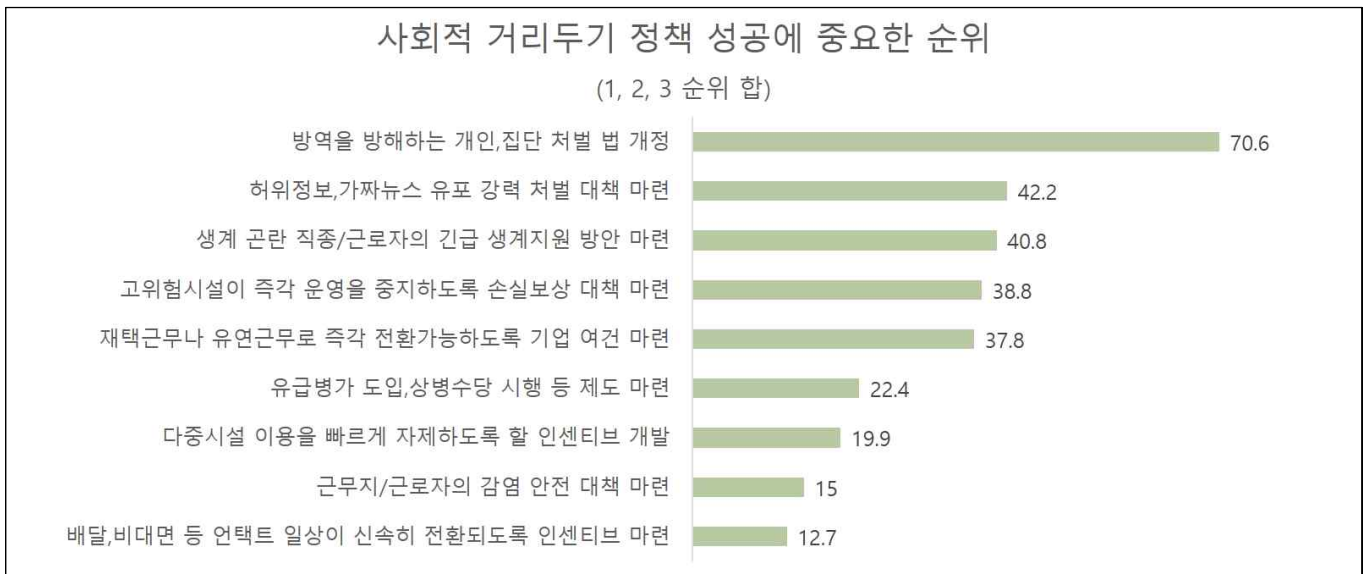


○ ‘코로나19 발생 이후 본인이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않은/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가’의 질문에는 11.8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19 장기화 대비: 거리두기 정책 성공을 위한 과제

확산 시 거리두기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세 가지 고르도록 한 뒤 1~3 순위 답변을 모두 합산하여 응답 빈도의 분포를 본 결과, '방역을 방해하는 개인과 집단의 처벌 강화' (23.5%),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 단속'(14.1%),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나 강화 시 타격을 받을 직종이나 근로자를 위한 '생계지원 마련'(13.6%) 이 상위 3가지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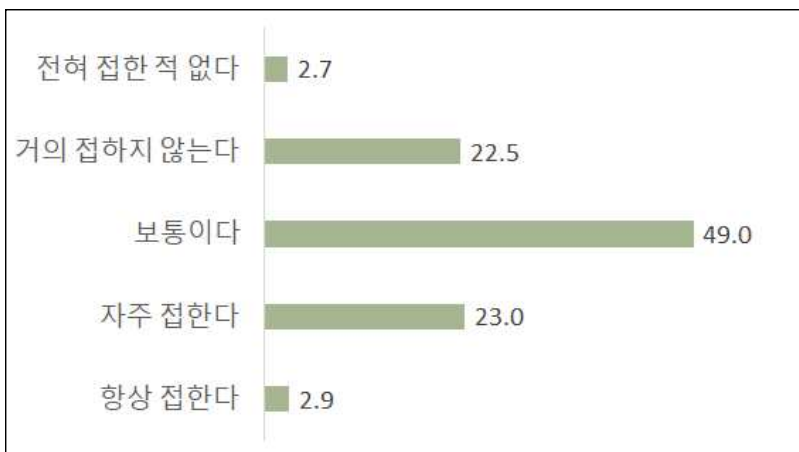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정보방역

○ 일주일간 코로나19 관련한 혐오 표현, 발언을 듣거나 본 적이 있는가 질문에 '그렇다' 39%, '아니다' 61%로 나타났다. 듣거나 본 코로나19 관련 혐오의 대상을 복수 응답으로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는 신천지>기독교>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지 않는 사람>특정 정당, 정치인이 상위 5순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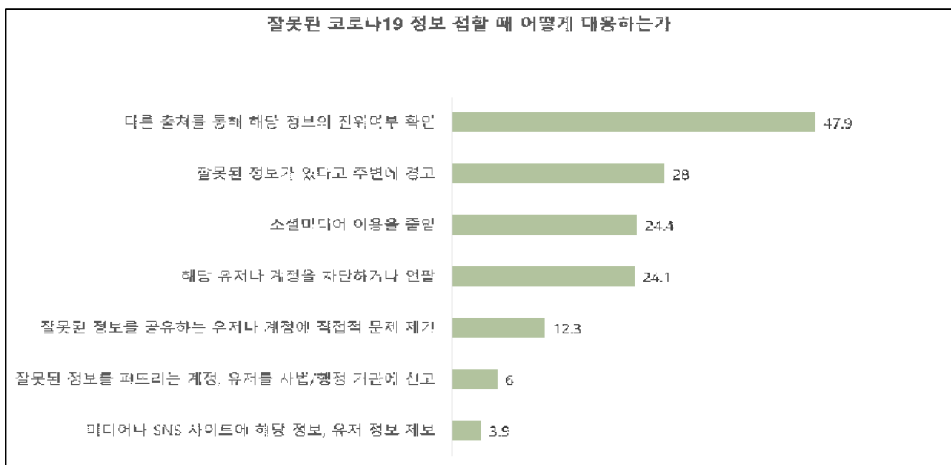
○ 다음으로, 최근 코로나19에 관해 나중에 허위로 판명난 가짜 뉴스, 부정확한 정보, 또는 의도적인 정보 등을 통칭하는 오정보(misinformation)을 얼마나 자주 접하는가를 5점 척도(1,2: 주로 접함, 3: 보통, 4,5: 주로 접하지 않음) 로 묻고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를 전혀 접한 적이 없거나 거의 접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2.7% 및 22.5%였고, 반대로 자주 또는 항상 접한다는 답변은 23% 및 2.9%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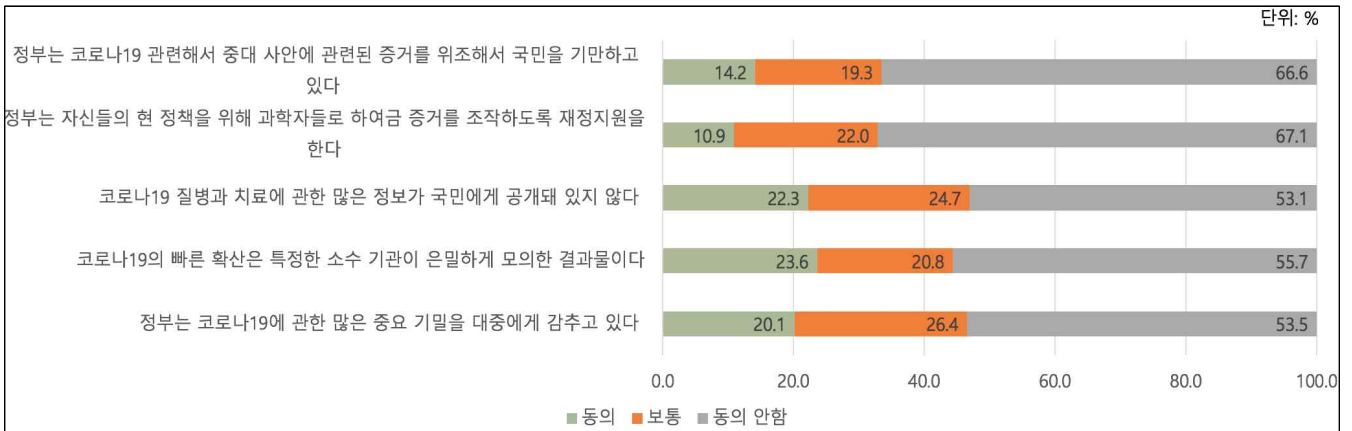
-이런 오정보는 유튜브, 틱톡 등 영상 플랫폼> 뉴스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뉴스 댓글로 >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주로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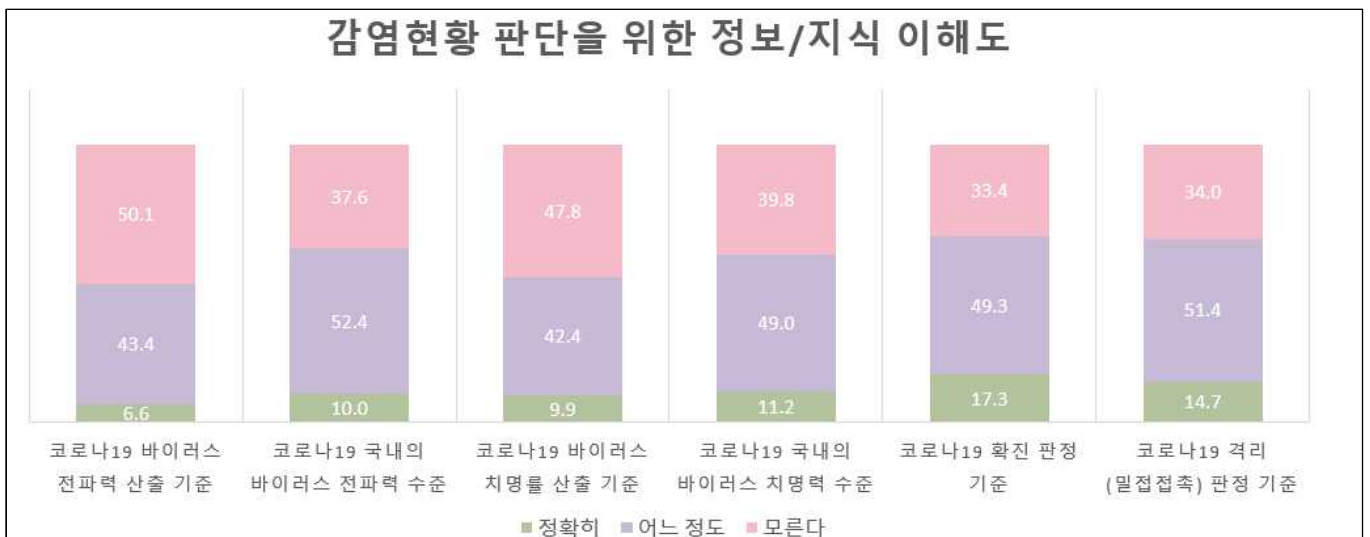
-오정보를 접했을 때의 대응의 경우, ‘다른 출처를 통해 진위를 확인한다’에 그렇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주변에 알린다’는 대응이 2순위였다. 이는 1순위가 ‘다른 출처를 통해 진위를 확인한다’라는 점에서 캐나다의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캐나다 조사에서는 ‘해당 유저나 계정을 차단하거나 끄는다(팔로잉 끄기)한다’가 2순위였다는 점과는 차이를 보였다.



○ 한편, 코로나19 상황 정보를 은폐하거나 조작한다는 음모론적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제시된 코로나19 관련 문헌에 제시된 도구를 번역하여 적용했다. 조사 결과 5개 문항 5점 척도(1,2: 동의함/ 3: 보통/ 4,5: 동의하지 않음)의 전체 평균은 3.64로, 음모론적 믿음에 보통에서 동의하지 않는 방향의 결과이다. 문항별 분율을 보더라도 음모론적 믿음에 53.1%~67.1% 수준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감염병 현황을 판단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의 이해도를 총 6개 문항을 제시 정확히 안다/ 어느 정도 안다/ 모른다 중 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모른다’ 답변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력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고, 반대로 모른다는 답변이 가장 낮은 문항은 감염 확진의 판정 기준이었다 (33.4%).



및 향후 계획 등

유명순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7개월을 훌쩍 넘기며 국민 거의 모두가 일상의 자유로움이 제약을 받고 박탈되는 경험을 했다. 잦은 일정 변경과 취소 등으로 목표 실현에도 크고 작은 차질을 겪었다. 이전이라면 당연했을 관계의 형성이 가로막히거나, 관계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정서적으로 지치고 우울한 경험 역시 계속되는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면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경고가 있는 만큼, 매우 실질적인 심리방역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코로나와의 공존에 대한 과도한 낙관은 방심과 무책임을 낳지만, 반대로

지나친 위축과 긴장 역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유연한 시민사회 방역을 도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목표 실현의 기회, 참여를 높일 방안, 단절과 괴리 대신 연대를 경험할 수 있는 코로나와의 공존 전략 개발과 제공을 위기 정책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 교수는 “국가적인 방역 노력에서 일부의 일탈로 상호 신뢰가 상당 수준 훼손된 것을 확인했고, 이것이 간과할 수 없는 적신호로 보인다”며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방역 본부의 경고가 곧 ‘아무도 믿을 수 없다’로 흘러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급상승한 사회적 위기감은 그 자체로 갈등과 반감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지금은 유연한 방역 대응 및 신뢰와 연대를 통한 동반형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소통할 중대한 기로”라는 것이다. “이런 높아진 위기감 속에서 극복을 위한 희망과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공유할 것인지를 후속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진과 함께 모색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영 원장 역시 “코로나19 대응은 초학제적 융합과 정부, 과학, 산업 등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이번 1차 조사를 계기로 조사를 지속하는 것은 물론 그 외 다양한 건강과 환경 연구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학술적 근거를 확보하겠다. 이번 조사 결과를 다루는 세미나를 신속히 기획하여 학술적 합의와 함께 사회적 소통을 위한 노력 역시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본문에 인용된 조사 정보 (정기조사들은 유명순 교수팀이 개발한 문항을 협력 조사 형태로 포함, 조사를 실시한 것)

| 조사기간 | 조사명 | 조사대상 |
|-----------------|---|----------------------|
| 2020.1.31~2.4 | 유명순 외 『코로나19 국민위험 인식조사』 1차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 2020.5.7~5.10 | 케이스탯 5월 정기조사 | 전국 만 18세 이상 1,050명 |
| 2020. 5.18~5.29 | 유명순 교수팀·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동 『제1차 경기도민 코로나19위험인식조사』 | 경기도민 만 18세 이상 2,589명 |
| 2020.6.4~6.7 | 케이스탯 6월 정기조사 | 전국 만 18세 이상 1,072명 |
| 2020.6.26~6.29 | 유명순 외 『코로나19 국민위험 인식조사』 6차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 2020.7.2~7.5 | 케이스탯 7월 정기조사 | 전국 만 18세 이상 1,027명 |
| 2020.7.31.~8.3 | 2020 한국리서치 16차 정기조사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 2020.8.6~8.9 | 케이스탯 8월 정기조사 | 전국 만 18세 이상 1,134명 |
| 2020.8.25~8.28 |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 전국 만 18세 이상 2,000명 |